

Energy Snapsho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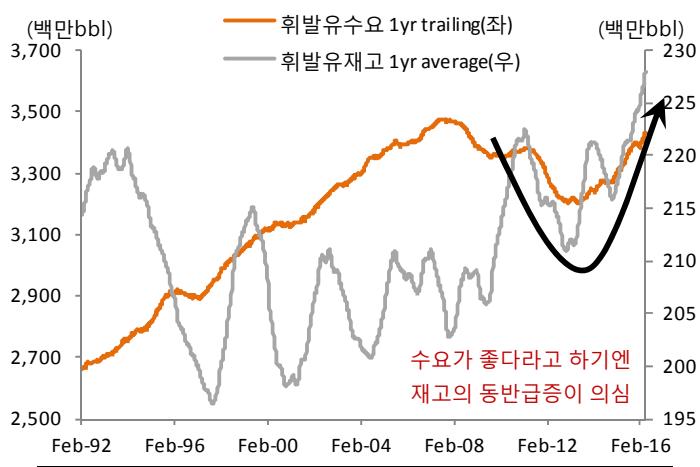
Analyst. 손지우

3773-8827 jwshon@sk.com

정말 휘발유 수요가 좋을까?

2016-05-12

저유가 시대 이후 휘발유의 수요와 재고는 동시 증대



저유가가 수요를 촉발했다기 보다는 재고를 축적시킨 것

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(손지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 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

결론

유가하락이 휘발유 수요를 촉발?
순간적인 'bargain sale' 국면에서
축적한 재고에 불과함

- 여전히 만연해 있는 “저유가의 축복” 논리. 즉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 수요가 증대되었다는 추정
- 미국 휘발유 수요가 저유가 시대 이후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재고도 급증했음을 주목해야 함

- 휘발유 판매 증대가 실질수요인지 재고효과인지 파악하기 위해 1yr trailing 수요 / 1yr avg 재고 조사
- BRICS의 절정기이자 리먼사태 직전이었던 08년 초 동수치는 사상 최저였음. 즉 실질수요 강세였음을 의미
- 그러나 이후 증대추세였고, 2014년 말 저유가 시대 진입 이후로도 큰 변화 없었음. 즉 최근 수요증대의 많은 부분은 재고 축적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함
- “bargain sale”인 줄 알고 축적한 재고에 불과. 만약 실질수요 안 나오면 재고가 부담되면 무슨 일 벌어질까?